

- 주요 뉴스: 미국 7월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하며 연착륙 기대 증가. 주간 고용지표도 양호
  - 연준 주요 인사, 9월 금리인하 가능. 과도한 통화정책 완화 지연을 경계
  - 중국 7월 산업생산, 전월비 둔화 지속. 7월 신규주택 가격도 하락세 심화
  - 일본 2/4분기 GDP, 전기비 증가 전환.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을 뒤받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감소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6%], 달러화 강세[+0.5%], 금리 상승[+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양호한 7월 소매판매 및 주간 고용지표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와 은행주 중심 매수 증가 등으로 1.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평가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4%, 1.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9월 큰 폭의 금리인하 전망 악화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8bp 상승

※ 뉴욕 1M NDF 종가 1362.4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64.9원, 0.51% 상승). 한국 CDS 하락

| 주요 시장 동향 |      |         |         |        | 주요 시장 동향    |       |         |         |        |
|----------|------|---------|---------|--------|-------------|-------|---------|---------|--------|
|          |      | 8/15일   | 8/14일   | 전일대비   |             |       | 8/15일   | 8/14일   | 전일대비   |
| 주가       | 미국   | 5,543.2 | 5,455.2 | +1.61% | 국채금리<br>10y | 미국    | 3.91%   | 3.84%   | +8bp   |
|          | 유럽   | 509.88  | 504.10  | +1.15% |             | 독일    | 2.26%   | 2.18%   | +8bp   |
|          | 중국   | 2,877.4 | 2,850.7 | +0.94% |             | 영국    | 3.92%   | 3.83%   | +10bp  |
|          | 일본   | 36,727  | 36,442  | +0.78% | CDS<br>5y   | 한국    | 34bp    | 36bp    | -2bp   |
|          | 한국   | 휴장      | 2,644.5 | -      |             | 중국    | 61bp    | 64bp    | -3bp   |
| 환율       | 달러지수 | 103.06  | 102.57  | +0.48% | 위험지표        | EMBI+ | 419     |         |        |
|          | 유로화  | 1.0972  | 1.1012  | -0.36% |             | VIX   | 15.23   | 16.19   | -5.93% |
|          | 엔화   | 149.28  | 147.33  | -1.31% |             | WTI유  | 78.16   | 76.98   | +1.53% |
|          | 위안화  | 7.1747  | 7.1411  | -0.47% | 원자재         | 구리    | 415.1   | 404.0   | +2.75% |
|          | 원화   | 휴장      | 1,358.0 | -      |             | 금     | 2,456.8 | 2,447.9 | +0.37%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 금일의 포커스

### ■ 미국 7월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하며 연착륙 기대 증가. 주간 고용지표도 양호

- 7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1.0% 늘어 예상치(0.3%)를 큰 폭 상회했고, 이는 작년 1월 이후 최고 증가율. 특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양호하다는 사실이 확인. 컨트롤 그룹(변동성이 큰 자동차, 휘발유, 건축자재, 음식 서비스 등을 제외) 역시 0.4% 증가하며 예상치(0.3%) 대비 높은 수준
- 이번 결과는 소비자 지출이 고물가 장기화, 노동시장 냉각, 불확실한 경제 전망 등의 여건에서도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제시. 또한 최근 팬데믹 기간 축적되었던 예금이 고갈되고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아직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
- 경제는 여전히 성장 궤도를 이탈하지 않았으며, 9월 FOMC에서 0.50%p 인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FWDBONDS). 아울러 이번 결과는 경기 연착륙 전망이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BofA). 다만 향후 소비자들이 필수 소비재에 집중하면서 전반적인 지출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Bloomberg Economics)
- 8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역시 22.7만건으로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여 경기가 시장의 우려만큼 나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 이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지만, 질서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 한편 8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는 전월비 하락(13.9→-7.0)한 반면 8월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하락세가 둔화(-6.6→-4.7). 7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0.6% 감소했는데, 이는 허리케인 베릴 등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

##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 연준 주요 인사, 9월 금리인하 가능. 과도한 통화정책 완화 지연을 경계

-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발언. 또한 노동시장 냉각 신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완화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
- 세인트루이스 연은 무살렘 총재는 정책금리 조정의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언급. 시장에서는 조만간 9월 금리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 ■ 영국 2/4분기 GDP, 양호한 성장세 유지. 서비스 부문 호조 등이 기여

- 2/4분기 GDP는 전기비 0.6% 늘어 1/4분기(0.7%)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으나 예상치(0.6%)에 부합. 항목별로는 서비스 부문 및 정부지출이 GDP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 금리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 시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PwC)

## ■ 중국 7월 산업생산, 전월비 둔화 지속. 7월 신규주택 가격도 하락세 심화

- 7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5.1% 늘어 전월(5.3%) 대비 증가세 둔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비 2.7% 증가하여 전월(2.0%) 대비 높은 수준. 소비는 당국의 지원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산업생산 등을 고려 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정부의 성장을 목표(5.0%) 달성 역시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판단(Standard Chartered)
- 한편 7월 신규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 4.9% 떨어져 전월(-4.5%) 대비 하락세 심화. 상당 기간 부동산 경기의 바닥 확인은 어려울 가능성(ING)

## ■ 중국 인민은행 총재,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추가 대책 내놓을 방침

- 판공성 총재는 경기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 다만 물가안정 및 적정 수준의 물가상승 유도 등도 중요하기에 지원책이 극단적인 형태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첨언

## ■ 일본 2/4분기 GDP, 전기비 증가 전환.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을 뒷받침

- 2/4분기 GDP는 전기비 0.8% 늘어 1/4분기(-0.6%) 대비 증가 전환했으며, 예상치(0.6%) 대비로도 높은 수준. 이는 개인소비 회복, 자본투자 증가, 수출 호조 등에 기인.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추가 금리인상 전망을 지지한다고 평가

## ■ 호주 7월 고용건수, 예상치 상회. 금리인하 시기 지연될 가능성

- 7월 고용이 전월비 5만8500건 증가하여 예상치(2만건 증가) 큰 폭 상회. 이번 결과는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시장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

## 주요 경제지표

### ■ 주요 경제 이벤트(8/1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미국 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 발언
- 미국 7월 주택착공 및 건설허가. 영국 7월 소매판매, 호주 중앙은행 총재 발언

##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 미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 경제 및 통화정책 전망 불확실성 등으로 지속될 소지 - WSI (Investors Still Face Fog of Uncertainty on Economy, Fed)

- 7월 소매판매 호조,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 감소 등으로 투자자 불안이 완화. 다만 향후 경기둔화 수준 관련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양호한 7월 소매판매 결과는 6월 사이버 공격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자동차 판매의 회복 영향이 컸기 때문. 한편 7월 산업생산은 예상치 하회하여 경기 악화를 시사
- 한편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구체적인 인하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또한 최근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이후 주가가 급락한 점 등을 감안했을 경우, 증시는 통화정책 전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 이에 따라 향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

### ■ 연준의 금리인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어려울 가능성 - WSI (Interest Rate Cuts Are Coming but Won't Do M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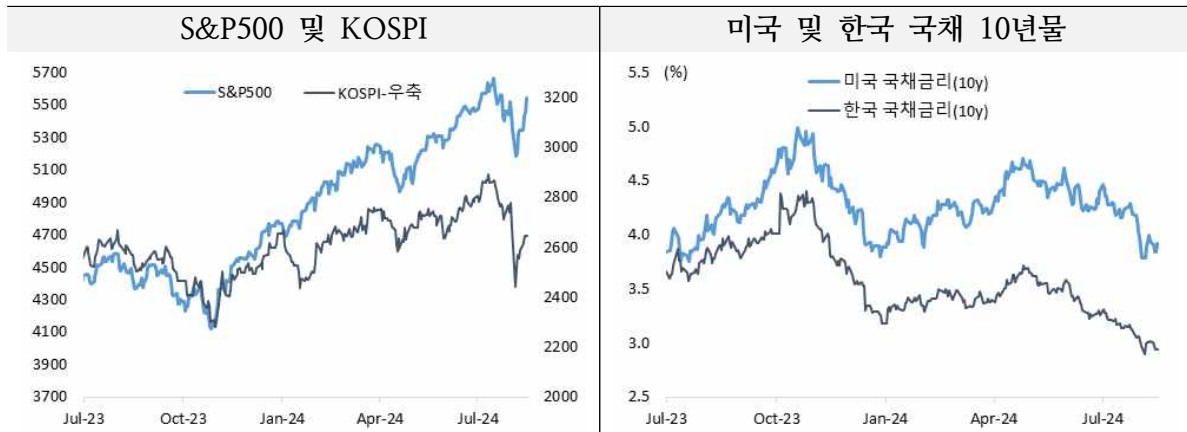
-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하가 경기침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편.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면, 금리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소지. 아울러 완만한 수준의 금리인하가 초과 저축 소진에 따른 소비지출 둔화, 기업투자 부진, 관세 등 실물 경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 또한 연준이 우려하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 특히 은행은 막대한 미실현 손실에 직면해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 부문 고금리 대출의 만기가 대규모로 도래하고 있는 상황. 한편 시장에서는 금리인하가 시작되면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 또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존재

### ■ 미국 대선 후보들의 공약, 팁 관련 면세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 - 블룸버그 (Trump and Harris Should Focus on the Minimum Wage, Not T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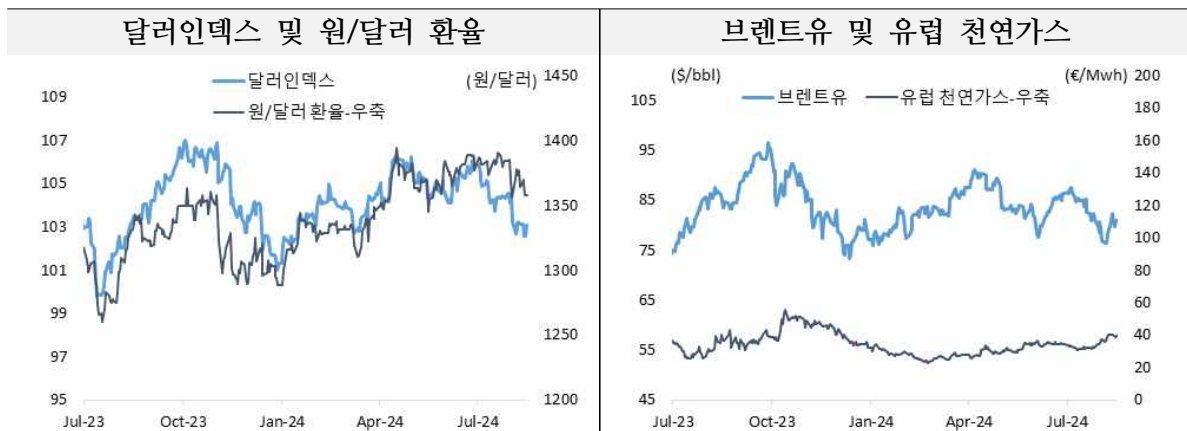
- 양당 후보가 주장하는 팁 관련 세금 면제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 측면에서 긍정적. 그러나 이는 특정 산업의 일부 항목에만 면세가 적용되어 공정성 논란을 초래. 아울러 세수 감소로 다른 부문에서 정부수입을 늘려야 하는 왜곡 현상을 유도
- 중요한 점은 팁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일부 대체한다는 사실. 이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팁에 부여되는 세금의 면제 보다는 저소득층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세율의 상한성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 **유로존 경제 성장, 일부 국가 개선에도 독일의 부진 등으로 여전히 취약 - The Economist**  
(Europe's economic growth is extremely fragile)
  - 2/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0.3%를 나타내 완만한 성장을 달성. 최근 일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역내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 신호도 발신
  - 다만 실질소비가 예상보다 약하고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문의 어려움은 지속. 특히 독일의 경우 경제 성장이 저조하고 수출도 부진. 또한 예산 제약 등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 이러한 독일 경제의 현실은 유로존 전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미국 주택경기, 대출금리 하락에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단기간 내 회복은 기대난 - WSJ**  
(Why Falling Mortgage Rates Aren't a Quick Fix for Frustrated Homebuyers)
- **중국 정부의 서투른 수익률곡선 제어 노력, 예상 밖 혼란을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China's Clumsy Yield-Curve Control Can Easily Misfire)
- **인도 경제의 잠재력, 서비스업과 자본시장 부문 등이 과소평가 - Financial Times**  
(Five undervalued qualities of the Indian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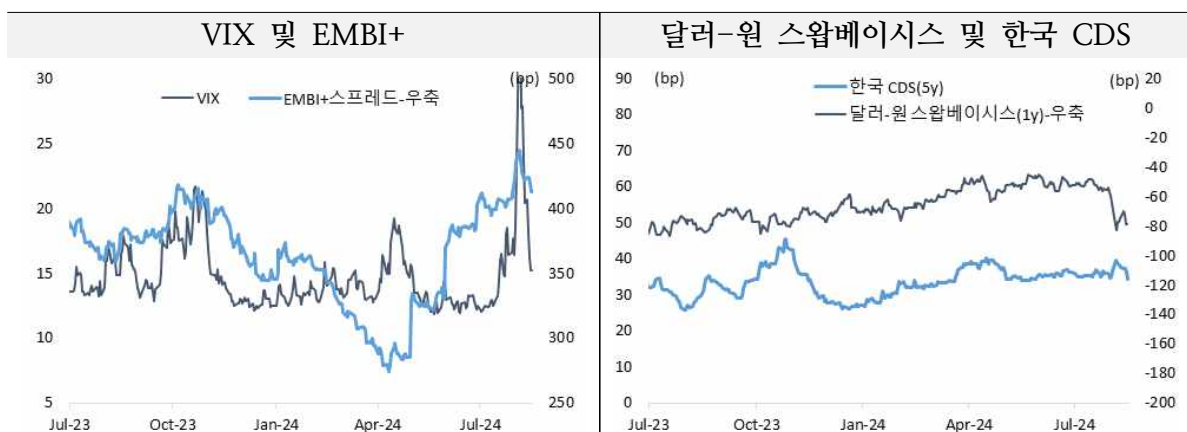
##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mailto:jsjeong@kcif.or.kr)